

“장애인·비장애인대회 동시 개최 광주세계양궁 성공할 것”

세계양궁연맹 장애인위원 당선 광주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안형승 감독

GWANGJU 2025
Hyundai World Archery Championships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동시 개최 흔치 않아서 더 특별해
장애인양궁 널리 알리는 데 집중

생애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 도전
광주시청 소속 김옥금·윤태성
투병·부상 악재 딛고 선전하기를



“치우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장애인 양궁에 도움
이 될 방법을 찾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안형승(44) 양궁
감독이 세계양궁연맹 장애인위원회 위원에 당선됐
다.

안형승 감독은 지난 3일 광주갑대중컨벤션센터
에서 열린 제56차 세계양궁연맹(WA·World
Archery) 총회에서 스페인, 콜롬비아 후보자와
함께 3명의 위원에 선정됐다.

2차 투표에서 50.32%의 투표율을 얻은 그는 1
차 투표에서 선정된 스페인 위원과 4년의 임기를
소화하게 된다.

위원으로 세계 장애인양궁대회 조직 지원에 나서
게 되는 안형승 감독은 경기 규칙, 장애인 양궁 선
수 등급분류, 심판위원회 협력 등 장애인양궁 종목
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
다.

안형승 감독은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내 스
스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 광주에 와서 선수를
키우는 게 저의 당연한 일인데, 나도 많이 배우고
있다. 선수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발전되게 노력한
것밖에 없다”며 “장애인양궁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
신 세계양궁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
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체대 출신의 안형승 감독은 비장애인 리커브
선수 출신으로 지난 2022년 1월 광주시장예인 양
궁팀 감독에 취임했다.

이에 앞서 그는 2010년 세계양궁연맹 총감독을
맡았고, 2010~2012년 조지아 국가대표 총감독으
로 조지아 사상 첫 올림픽 출전권이라는 성과를 내
기도 했다.

2019~2021년 대한양궁협회 컴파운드 국가대표
코치로도 활약했던 안형승 감독은 장애인 양궁에서
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장애인 양궁팀 사령탑을 맡은 이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 1은 1, 2023 유럽컵 은 1,
202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도 종합우승을 이뤘
고, 윤태성, 권유나를 발굴해 국가대표급 선수로 이
끌기도 했다.

지도자로 이름을 알린 그는 세계양궁연맹 위원으
로 또 다른 역할에 도전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는 지도자의 역할이 최우선이다.

그는 “똑같이 팀에서 했던 그대로 선수들을 지도
하는 게 1순위다. 특히 신인 선수들을 더 신경 쓰겠
다. 두 번째는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양
궁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며 “세계양궁연맹의 장애
위원이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려고 한다. 세계적으로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궁인이자 광주를 기반으로 장애인 양궁을 이끌
고 있는 만큼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2025현대세계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맞는 감회가 남다르
다.

안형승 감독은 “선진국에서도 동시에 장애인·비
장애인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이기도 하다”며 이번 대회의 특별한
의미를 설명했다.

5일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개막해 12일까지 8일
간의 열정을 이어간다. 이어 22일부터 29일까지
47개국 445명 참가해 세계장애인선수권 대회 일정
을 펼치게 된다.

이번 장애인선수권대회에는 광주시청 소속의 김
옥금(65)과 윤태성(39)이 대한민국 대표로 나서
생애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노린다. 하지만 기대감
으로 안방에서의 잔치를 준비했던 안형승 감독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 속을 태웠다.

2024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최고령 선수가
기도 했던 ‘베테랑’ 김옥금이 암투병을 했고, 윤태
성은 장비 문제와 어깨 부상이 겹쳤다.

안형승 감독은 “김옥금 선수가 올해 암수술을 했
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는데 선수권 대회가 끝나고
수술할 지, 그 전에 할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
건강이 제일이라서 수술을 했고, 컨디션을 끌어올
리고 있다. 그래도 다행히 컨디션이 많이 왔다”며
“윤태성 선수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깨 부상이 있었고 장비가 망가졌다. 컴파운드, 특
히 장애인 쪽 장비는 대부분이 수입품이다.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경기장

구분	규격/수용인원	경기장
광주월드컵경기장 (비장애인대회 연습장)	105m X 68m 4만3000석	
광주국제양궁장 (예·본선)	230m X 140m 1672석	
5.18 민주광장 (결승장)	30m X 90m 800석	



■종목별 한국선수 출전 명단 및 경기 일시

종목	출전선수	예선일시	경기장	결승일시	경기장
리커브	개인 남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10(수) 09:15~09:52	광주 국제 양궁장	11(목) 15:42~15:54
	개인 여	임시현, 강재영, 안산	11(목) 09:15~09:52		12(금) 15:42~15:54
	혼성(2명) 남1, 여1	미정 (개인 예선전 남·여 1등이 혼성 팀 선수로 선발)	9(화) 16:45~17:10		10(수) 14:24~14:43
	단체 (3명)	남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여 임시현, 강재영, 안산	9(화) 14:15~17:10 9(화) 14:15~17:10		10(수) 15:21~15:47 10(수) 16:25~16:51
컴파운드	개인 남	최용희, 김종호, 최은규	7(일) 09:15~09:52	5-18 민주 광장	8(월) 15:42~15:54
	개인 여	소채원, 심수인, 한승연	8(월) 09:15~09:52		9(화) 15:42~15:54
	혼성(2명) 남1, 여1	미정 (개인 예선전 남·여 1등이 혼성 팀 선수로 선발)	6(토) 16:45~17:10		7(일) 14:24~14:43
	단체	남 최용희, 김종호, 최은규 여 소채원, 심수인, 한승연	6(토) 14:15~14:45 6(토) 14:15~14:45		7(일) 15:21~15:47 7(일) 16:25~16:51

상기 일정은 경기 결과 및 대회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한국은 양궁의 나라로 꼽히지만 장애인 양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안형승 감독은 “아무래도 장애인 팀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나의
역할이기도 하다”며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으
로 대회를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내·외부

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시합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31년 9월 4일 설립된 세계양궁연맹은 국
제 양궁 종목을 총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정기구로 167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별취재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SSG의 경기가 취소됐다. 허리 통증으로 이날 엔트리에서 제외된 위즈덤은 비로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게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SSG전 우천 취소에 허리 통증 위즈덤 ‘반색’

KIA 타이거즈 외국인 선
수 패트릭 위즈덤에게 반가
운 비가 내렸다.

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
와 SSG 랜더스의 시즌 15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시즌 15번째 우천 취소이다.

비 덕분에 위즈덤이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
게 됐다.

아담 올러를 선발로 예고했던 이날 KIA는 윤도
현(3루수)을 톱타자로 해 박찬호(유격수)-김선빈
(2루수)-최형우(지명타자)-나성범(우익수)-오

선우(1루수)-김석환(좌익수)-김태균(포수)-김
호령(중견수)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전날에 이어 위즈덤의 이름이 라인업에서 빠졌
다.

위즈덤은 지난 2일 한화원정경기에서 허리 통증
으로 1타석만 소화하고 교체됐다.

3일 SSG전에서는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
고, 위즈덤은 덕아웃에서 방망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4일에도 위즈덤은 라인업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
범호 감독은 교체 출전도 없다고 언급했었다. 위즈

덤은 지난 5일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예
엔트리에서 제외되기도 했었다.

bench에서 팀의 4연패를 지켜야 했던 만큼 경기
에 나서지 못하는 위즈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올러에게도 내심 반가운 비가 됐다. KIA는 배랑
갈 승부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원투펀치’로 승부수
를 던졌다. 3일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4일 휴식
뒤 마운드에 올랐고, 올러도 하루 앞당겨 4일 등판
이 예정됐었다.

올러는 정상적으로 5일 휴식 뒤 5일 KT와의 경
기에 선발로 나선다.

한편 이날 취소된 경기는 추후 편성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 발’이 승부 가른다

리커브, 세트포인트…동점 상황되면 ‘슛오프’
컴파운드, 누적 점수…마지막 화살까지 긴장

세계양궁 알고 보면 재미있다

세계 양궁스타들이 광주에서 실력을 겨룬
다. 올해 경기의 흐름을 바꿀 변수는 바람과 멘
탈이다.

광주국제양궁장은 비교적 바람 영향이 적지
만,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결승전 미세한
풍향 변화가 활 끝을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세트포인트제(리커브)와 누적점수제
(컴파운드) 특성상 한 엔드, 한 발의 집중력이
승부의 분기점이다.

한국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축적한 결승 루
틴과 팀 운영으로 변수를 최소화해 왔다. 광주에
서 그 ‘집중의 기술’이 다시 증명될지 주목된다.

리커브는 세트 포인트로 승부가 갈리고, 컴
파운드는 누적 점수로 긴장감이 이어진다. 이
차이만 알아도 결승의 한 발 한 발이 다르게 보
인다. 리커브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70m
거리에서 지름 122cm 표적을 향해 예선 72발
을 쏜다.

본선은 세트제로 진행돼 세트마다 점수를 나
뉘 갖고, 개인전은 먼저 6세트포인트에 도달한
선수가 이긴다. 세트가 5대5로 끝나면 20초 안
에 1발씩 번갈아 쏘는 슛오프로 승자를 가른
다. 이때 점수가 같으면 과녁 중심에 더 가까운
화살이 이긴다. 세트 단위의 흐름과 ‘한 발 역
전’의 드라마가 리커브의 묘미다.

양궁 종목은 리커브와 컴파운드로 나뉜다.

컴파운드는 1960년대 도르레·케이틀을 더해
진화한 활을 쓴다. 50m 거리, 지름 80cm의 6
링 표적을 향해 예선 72발을 쏘고, 본선은 15
발(3발×5엔드) 합산으로 승부를 낸다.

동점이면 1발 슛오프 후 점수, 이어 근접도
로 판정한다. 완벽에 가까운 조준과 묵직한 집
중력으로 150점 ‘퍼펙트’를 노리는 장면이 백
미다. 리커브의 파도 타기와 달리, 컴파운드는
마지막 화살까지 계산되는 체스 같은 승부다.

리커브는 활 양끝이 바깥으로 휘어진 전통
활의 현대형으로 세 손가락 탭으로 줄을 놓는
느낌과 리듬이 살아 있다.

컴파운드는 기계식 릴리즈로 줄을 끌어내듯
놓고 배울 조준기를 써서 미세 떨림까지 억제
한다. 같은 한 발이라도 리커브는 흐름의 전환
점, 컴파운드는 총점의 결정타로 읽히는 이유
다.

종목 구성은 개인·단체·혼성전이 공통이며,
리커브는 70m, 컴파운드는 50m라는 거리 차
이가 전략을 갈라놓는다. 관중이라면 세트의
흐름과 엔드의 리듬, 그리고 슛오프의 숨 고르
기까지 눈여겨보면 한층 깊게 즐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리커브는 세트의 파도와 한 발의
반전, 컴파운드는 누적의 압박과 완벽에 가까
운 군더더기 없는 10점을 보는 맛이다.

/특별취재팀=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